

성무안보연구소, 안보학술세미나 성료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성무안보연구소는 7월 24일 공군호텔에서 ‘항공우주 무기체계 중심, K방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차준선(중장) 공군사관학교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부승찬 국회의원,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합참·공군·방위사업청·방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공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과학기술 집약체인

국산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이 필수”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강력한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인철(전 공군참모총장) 성무안보연구소 이사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예측이 불가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성무안보연구소는 앞으로도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관회, 제8회 정기총회



부서관회(회장 차주성)는 8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 보고 및 회원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감사장 전달, 신입회원 소개, 회장 인사,

2부에서는 경과 보고, 감사 보고, 회계 보고와 결산안 및 사업계획 토의 의결 순으로 실시하였다.

차회장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응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였다.

ROKAFIS, 공군 격오지부대 개선사업 완료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을 맡고 있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28억원을 지원하여 시작됐던 공군 격오지부대 체력단련실 개선사업이 3년 만에 완료됐다.

공군 내에서 고산과 도서지방 등 격오지에 부대를 두고 있어 협소한 부대 여건 상 장병체력단련이 제한되었던 방공관제사령부,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45개 부대(관제 및 포대/정비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체력단련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최신의 운동기구를 지원하여 민간 중급 수준의 피트니스 센터로 개선하는 본 사업은 이종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우주의 정원)을 따서 ‘우정 피트니스센터’로 명명되어 2023년 6월 첫번째 센터가 개관한 이래 2025년 9월



마지막 45호 센터가 완성된 것이다.

ROKAFIS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현재 대부분의 격오지부대 장병들이 최신 장비가 구비된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ROTC 장교회 훈련 격려방문 및 공익법인 지정

ROTC 장교회(회장 김석찬)는 8월 8일 공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학군 54기 후보생 하계입영훈련을 참관하고 격려하였다. 회장단은 학군 교장과의 접견에서 예비역 교관, 신규 표창 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격려금 및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행사를 진행하였다.

9월 11일에는 한서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군 생활 비전 컨설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학군 54기 후보생을 대상으로 ‘예비장교의 바람직한 군 생활 노하우’를 실용적이고 상세한 조언을 전달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총 11개 학군단 후배 예비장



교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ROTC 장교회는 9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봉사과 헌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군항과고 총동창회, 업무협약 체결 및 부대 위문



공군항공과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진홍)는 9월 1일, 군인경제회 대회의실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동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총동창회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문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는 국군문화진흥원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독서생활화를 통한 인문병영문화 고양 및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하였다.



총동창회는 또한 9월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조국 영공 수호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동창회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명절에도 굳건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교 총동창회는 매년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 공군부대 위문(비행단,방공관제사령부,미사일사령부 격오지)과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공군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영하 회원, 다수의 문학상 수상 및 위촉

본회 이영하 회원이 8월 15일, 문학신문사와 유관순문학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30회 유관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주)한국문학과 (사)문학그룹샘문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5년 한국문학상 공모전 및 한국문학시선집 시부분에 작품 “돌담을 쌓는 마음으로 외 2편”으로 한국문학상 우수상에 당선되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9월에는 UN NGO 문학상과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25 대한민국 베스트인물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회원은 남북청소년중앙연맹 명사와의 대화 특급명사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다이슨의 무한 변신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루츠템 회장)



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Dyson)이 농업혁명을 이끌겠다며 무한(無限) 변신(變身)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이슨의 농장이 디지털과 모빌리티, 에너지 변환으로 미래 농업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본래 다이슨은 기능은 물론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소재, 색상으로 인기를 얻은 가전회사다. 다이슨은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해 보겠다’고 결심한 한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다이슨의 창업자이자 최고 엔지니어, 발명가인 제임스 다이슨은 어느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흡입력이 떨어지는 청소기에 불편을 느꼈다. 그는 먼지봉투에 담기는 먼지가 봉투 표면의 틈을 막으면서 청소기의 흡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새로운 진공청소기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먼지와 공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흡입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연구했다. 그는 공기 회전을 이용해서 공기와 톱밥을 분리하는 제재소의 사이클론 시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진공청소기에 연계시켜 흡입력이 강력한 청소기를 발명했다. 영국 배스 지역의 작은 차고에서 청소기를 개발한 다이슨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일어섰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 1만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최근에는 고체 배터리 셀, 고속 전기모터, 비전 시스템, 로봇,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미 가전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밀어 부치고 있다. 영국 런던 인근 소도시 맘즈버리에 가전 기업 다이슨 연구소가 있는데 창업자 다이슨의 집무실 벽면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지나친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글귀로 도배되어 있어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의 상징이었던 영국이 EU 탈퇴 후 식량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곡물가가 요동치

며, 팬데믹 이후 기후 이변까지 겹치며 영국 내의 곡물 공급망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다이슨 파밍(Farming)의 톰 스토어 농업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농기계 운영비나 온실 유지비 등이 올라 식량 안보 이슈가 영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2012년부터 영국의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업 혁신에 뛰어 들었다. 그는 “농산물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국의 환경에 다이슨의 기술력을 접목해 농업 혁신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다이슨이 선택한 길은 ‘지속 가능한 농법’이다. 현재 다이슨의 농장에선 연간 밀, 사탕무, 보리, 감자, 콩 등 곡물과 뿌리채소류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농장의 면적은 서울시 여의도의 50배 크기인 36,000에이커(약 145Km²)에 이른다. 현재 다이슨 농업 혁신이 보여주고 있는 지속 가능 분야는 딸기 농업이다. 링컨 농장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캐링턴에 있는 유리온실에선 다이슨 농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길이 760m, 끝이 까마득해 보이는 유리온실 안. 양쪽으로 늘어선 1456줄의 딸기 화분 사이를 네 팔이 달린 로봇”이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온실의 효율성으로 딸기 농사를 3모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딸기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절마다 다른 일조량과 온도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데 다이슨은 이를 혐기성 소화 설비에서 나온 전기를 활용해 발광다이오드(LED)를 켜서 일조량을 맞추고,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온실에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다이슨은 이곳 유리온실에서 연간 122만5000주(株)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이슨의 농업 혁명은 디지털·AI 기술로 정밀관리·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농장 전체를 통합 시스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돌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Smart Farm)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곡물을 자급 자족 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농업 혁명을 앞당겨야 할 시점이다.

목적 있는 노년의 삶을 살자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미 버지니아 바이블대학교 부총장)



요즘은 초딩 저학년도 성인가요를 흥얼거리는 시대가 되었다.

초딩 1학년 아이가 TV가요제에 출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목청을 높이며 애절하게 부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그런 풍경에 필자는 한국 사회의 천박성에 비애감을 느낀다. 저 나이라면 동요를 부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안의 열등감이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는 왜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할 일이다.’ 그게 거북이의 삶이었다. 7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알았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잘 알고 있듯 토끼가 거북이를 앞잡아보고 낮잠을 잤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북이가 진짜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의 느낌만 보고 여유를 갖고 달리를 한 반면에, 거북이는 오직 정상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토끼와는 상관없이 오직 목표를 향해 꾸준함을 보였다.

흔히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일희일비(一喜一悲)’로 울고 웃는다. 그렇게는 살지 말자. 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나 이제 가노라, 나의 시간이 다 하였노라. 땅은 나를 돌려보내고 하늘은 나를 불러 이끄노라.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며, 사랑을 알았고, 진리를 향해 걸었노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으러 가노라. 죽음이여, 너는 나의 문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로다.”

이 시는 톨스토이가 마지막 남긴 시로써 초고, 편지, 일기의 여러구절들을 엮어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짧은 시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섰던 톨스토이의 영혼이 세상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 그의 삶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버릴 수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는 ‘세 개의 의문’이란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善)을 행하는 일이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우리

네 삶, 문득 대학, 중용에 나오는 신독(愼獨)과도 맥이 닿는 ‘무과아심(無愧我心)’이 떠오른다.

‘내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내 마음을 들춰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 ‘노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다.

청춘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흰머리에 얼굴 주름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손에 쥘 것이 없다고 실패라 생각지 말라.

이날까지 ‘무탈’하게 산 것도 축복이다. 나누어 주었다고 보답을 바라지는 말자.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공덕(功德)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잊되, 받은 것은 기억하자.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여도 눈감아 주고 포용(包容)해 주자.

용서할 줄 안다면, 남은 세상 살아갈 동안, 적(敵)은 없을 것이고, 인생 마무리는 멋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육신(肉身)은 은퇴(隱退)가 있어도, 사람의 감정과 사랑에는 ‘은퇴’가 없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다. 걸음으로 보기에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모두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걷는 사람’은 목적 없이 그저 걷는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발을 옮기지만, 결국 제 자리만 맴돌게 된다.

반면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품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간다. 힘이 들 때면 잠시 멈춰 쉬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이어 간다. 그 목적이 자신을 지탱해 주고, 삶에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발걸음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이 될 수 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젊은 앞들 사이에 누렇게 말라 죽어있는 쪽정이처럼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다음 순서인 죽음을 우린 어떻게 대면할까?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린 정직해져야 한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해야 할까?

답은 “뭣 찾은 거다. 이유는 죽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후회를 한다. 후회는 선택한 뒤에 따르는 경험과 연륜에 따른 진솔한 반성, 돌이킬 수 없는 애잔한 마음의 표현이다. 혹여 후회와 자책으로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지지 말고 힘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도 소소한 감사와 소소한 사랑으로 채우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오직 목표를 향해 꾸준함을 보이는 거북이의 삶처럼 살자.



블랙이글스,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협업의 베스트 모델이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공정책발전자문위원장)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는 공군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다.

에어쇼 올림픽으로 불리는 영국 왕립 국제에어타투(RIAT)에서 2012년 세계 최강 팀들과 겨뤄 최우수상을 비롯한 주요 상을 휩쓸어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에어쇼팀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가 30여 개뿐이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에어쇼팀 ‘프레체 트리콜로리’는 1931년에 창설되었고, 미국 ‘블루 에인절스’는 1946년에 창설되었다. 1967년에 창설된 ‘블랙이글스’는 역사는 짧지만 이제 세계 최정상급 에어쇼팀으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쇼는 단순한 곡예비행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조종술, 완벽한 팀워크, 보이지 않는 지원 인력의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협업의 결정체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기본적으로 8대 편

대로 수행된다. 시작은 네 대의 기체가 이루는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시작하여 화살표, 십자 대형, 파노라마 대형으로 변환하며 웅장한 스케일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태극기 기동은 세계 어느 에어쇼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 장면이다. 애국가와 함께 펼쳐지는 이 장면을 보면 늘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모든 기동은 편대장이 지휘하며 나머지 기체들이 1~2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며 즉각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조정밀 협업이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아무나 될 수 없다. FA-50, T-50 계열을 다룰 수 있는 고등훈련교관 조종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기량과 체력을 가진 이들만이 지원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기량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과 수 미터 간격에서 동료와 편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 인성, 협업 태도까지 검증받는다. 확고한 애국심과 충성심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뛰어난 조종술을 갖추었더라도 동료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면 블랙이글스 대원이 될 수 없다.

선발된 조종사들은 다시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 거의 매일 수십 번씩 같은 기동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습관을 버리고 팀 전체의 호흡에 자신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동료와 호흡을 일치시키려는 겸손함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이다. 편대장이 이끄는 흐름을 따르고 동료를 믿으며 자신을 팀에 녹여낼 때만 완벽한 대형이 가능하다. 협업은 구호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에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블랙이글스는 잘 보여준다.

조종사들의 화려한 기동 뒤에는 또 다른 협업팀이 있다. 정비사와 관제사다. 정비사들은 비행 전후 수십 가지 점검 절차를 수행하며 단 1%의 미진함도 허용하지 않는다. 관제사들은 공역을 관리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만약 이들이 한순간만 소홀하면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는 불가능하다. 빛나는 성과는 눈에 보이는 몇몇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수의 협업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블랙이글스가 사용하는 기체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이다. 따라서 블랙이글스가 에어쇼에서 선보이는 기동은 곧 FA-50의 성능을 입증하는 보증수표다. 그동안 블랙이글스의 명성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수 국가에 FA-50을 수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다른 방산품목 수출에도 협업을 통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블랙이글스를 ‘방산 홍보대사’라고 부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로 에어쇼팀을 구성하여 세계인을 감탄시키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이다.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최고의 성과는 완벽한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협업과 팀워크는 구호가 아니라 훈련과 습관을 통해 몸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위대한 성과는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수의 협업이 만들어 낸다.

블랙이글스는 단순한 에어쇼 팀이 아니라 협업의 베스트 모델이다. 요즘 많은 기업이 협업을 통한 초성고를 추구하고 있다. 협업을 잘하기 위해 협업형 인재를 기르고 협업팀을 구성하며 조직문화를 협업형으로 바꾸고 있다. 요즘 협업 강의를 하다 보면 협업 성공사례나 바람직한 협업팀 운영 방법을 묻는다. 이들에게 자신 있게 제시하는 사례가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다.

“블랙이글스처럼 협업하라. 이들이 협업의 교과서이고 베스트 모델이다”

그들이 영웅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다. 그들이 팀워크와 협업의 베스트 모델이다. 벌써 가슴이 뜨거워진다.

날개를 펼치던 날

이영하 (예 중장, 공사 22기, 전 레바논 대사)

바람이 내 어깨를
살며시 만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늘도
숨을 죽인 채
제 안의 침묵을 기다렸지요.

말이 되기 전의 속마음
눈물이 되기 전의 떨림
가슴을 밀고 올라온
한 줄기 날갯짓.

그것이 시였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첫 기도의 문장이었습니다.

무너진 저녁들 속에서도
단 한 줄의 꿈은
끝끝내 꺾이지 않았고
종이 위에 핀 말들이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당신의 눈빛 하나하나가
제 시의 마지막 행이 되어
또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설레는 가슴 안고
해변으로 가요

맑고 파란 하늘
코발트블루 바다빛

티 없는 모래사장
확 트인 해변

감사주는 해풍
무늬 예쁜 파도

정겨운 파도소리
장단에 맞춰

정든님 손잡고
사랑노래 부르며

행복의 보금자리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





회원이가입 안내

■ 공군전우회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회원구분

구 분	자 격	회 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20만원(1회)
준회원	홈페이지 가입(회비미납자)	

△가입절차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 '회원이가입'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전우회 소정 양식 [회원이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 또는 전국 지부/지회를 통하여 가입

△회비납부 (입금안내)

- 우리는행 319-260099-01-001 (예금주/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예금주/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지로용지 동봉)
-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공군발전협회

△회원자격 : 기관, 단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회원구분

구 분	자 격	회 비
정 회 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1회)
준 회 원	홈페이지 가입 후 회비 미납자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체	약정금액
일반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원	-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회원이가입'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이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회비납부 (입금안내)

- 우리는행 1006-301-276447 (예금주/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 (예금주/공군발전협회)

■ 회원혜택(공통)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공군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공군전우회 중앙회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별도신청)

■ 문의안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군)923-7590, 923-7541 ·Fax(02)825-8460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

▶신분별/직능별단체

단체명	회 장	사무(총)국장
공군항과고총동창회	김진홍 010-5187-3625	방정원 010-8618-4558
공군2사총동문회	김장회 010-5463-1786	김종현 010-4801-7034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010-6233-7231	이상목 010-9382-1084
조종간부회	김남선 010-3711-5778	신수연 010-9491-7831
황 성 회 (준사관)	장 군 010-5073-9424	신승진 010-5175-3051
원 우 회 (부사관)	차주성 010-3548-2893	정수일 010-5096-6150
군무원회	정화일 010-8753-6357	이 원 010-4273-7005
인터넷전우회 (로카피스)	이중근 02-3774-5876	이병권 010-5071-4763
공군통역장교회	심 건 010-9175-3886	김장환 010-4117-7158
유치곤장군보존회	양덕모 010-4536-1545	-
순직조종사부인회	송우영 010-9020-8358	박종희 010-4021-3616

▶국내지부/지회

지 회	회 장	사무국장
광주시지부	손정문 010-3601-3899	김승식 010-3603-0724
대구시지부	남상석 010-3080-6432	정규채 010-8206-7712
대전시지부	김호중 010-5409-6881	신두철 010-3141-2207
부산시지부	김선호 010-3590-2852	김경태 010-5071-2286
인천시지부	최용주 010-9855-2930	윤양로 010-7749-7668
제주도지부	강형근 010-8660-0370	문필현 010-5621-8720
강릉시지회	최원규 010-8885-9092	김봉환 010-5073-9353
경주시지회	정진표 010-8364-3060	유시현 010-6511-0006
군산시지회	반영곤 010-5173-2975	고석권 010-8645-4105
군위군지회	은헌기 010-9460-1068	조임식 010-3441-7527
김해시지회	제해언 010-4560-0622	김민준 010-8208-7797
동두천지회	김정수 010-5036-5133	김인국 010-8722-5831
문경시지회	한상식 010-5769-4355	김동성 010-9795-4210
사천시지회	박갑용 010-9676-1907	문상경 010-6579-0220
서산시지회	홍만진 010-6422-9440	도임구 010-5081-7799
성남시지회	박문석 010-3768-1234	안제성 010-3631-0120
수원시지회	송요정 010-3319-3744	이혁재 010-4678-4065
속초시지회	권영화 010-3722-1777	김창혁 010-4314-0891
아산시지회	정순웅 010-5422-6945	이석종 010-8505-9802
영월시지회	장호근 010-5363-0748	이종구 010-8901-4827
양평군지회	김수영 010-2771-2772	김재학 010-3011-9693
영주시지회	허기영 010-3840-8381	석두환 010-9076-9002
이천시지회	한상욱 010-3485-9678	김기창 010-4760-8217
익산시지회	최병훈 010-2686-6111	차경수
예천군지회	양찬모 010-9191-8949	조원희 010-3548-0584
의왕시지회	이석우 010-5245-4639	이병래 010-8721-2984
원주시지회	신종균 010-5269-9262	박광호 010-5361-6266
전주시지회	최석수 010-5630-0160	윤한호 010-3676-9523
진주시지회	조현철 010-3591-7378	강석동 010-3872-4292
창원시지회	김춘식 010-4170-8361	이병희 010-4585-8547
청주시지회	이균신 010-3576-9626	한일민 010-7774-3191
충남서부지회	조봉환 010-2253-7113	백원재 010-2848-2844
충주시지회	조동주 010-8441-1200	호웅기 010-5078-7656
칠곡군지회	이진권 010-3503-0321	장병찬 010-8584-7070
철원군지회	구한서 010-6372-9332	임연재 010-5352-5381
포천시지회	신건영 010-5365-5647	하명균 010-8830-3816
평택시지회	왕관현 010-5256-0188	김근찬 010-2755-2071
화천시지회	김철준 010-6276-9889	이영수 010-8891-1393

△해외지회

지 역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조지아	백남오	770-622-9227	
미국 덴바	김봉희	303-750-7476	
미국 샌디에고	이세중	760-845-12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김영본	919-946-6614	af66809@hotmail.com
미국 시카고	이근효	847-439-1168	
미국 뉴 욕	임재빈	201-233-6622	
미국 워싱턴	한수웅	301-806-2976	suhan317@yahoo.com
미국 L A	심인태	213-700-2566	intaishim@hanmail.net
미국 필라델피아	서장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두용	510-745-7874	
미국 하와이	장재혁	808-947-7582	9477582@gmail.com
캐나다 동부	위정남	647-802-9981	
캐나다 서부	홍창의	604-463-4129	
브라질 상파울로	박승문	5511-222-9325	
아르헨티나	전영표	11-4632-8139	
호주 시드니	윤석효	0417-049-722	